



“보육교사 자문단 이야기”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보육교사자문단

김경원	2
김빛나	3
김태경	6
심수아	8
양소연	10
연은모	13
이영선	1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보육교사자문단 김경원



보수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교사 중심이 아니라 대학 중심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지만, 지역대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주중에는 대학 방학 무렵이나 이루어집니다. 저는 프로그램 중 일부를 근무지 관할 연합회나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는 교육, 정보 개발의 형식으로 제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관련

대체교사를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접근성 문제는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서는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적 효과가 없고, 대충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프로그램만 좋다면 보육교사 능력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저녁시간에 실시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놓고 온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승급교육은 금, 토, 일을 활용하면서 자비로 교육받다보니 교사들의 반발 (집중력 떨어짐, 주말에 쉬지 못함)도 심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및 수료처리 관련 시스템(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장·단점 및 개선방안

보수교육은 몰라서 못하고 대체교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보육시스템에서 현직 보육교사들이 시스템에서 자신이 보수교육 받을 시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육통합시스템 에서 본인 인증할 때 자격관리만 될게 아니라 경력관리, 교육관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교육 기관 평가 시 반영되기를 원하는 내용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인성교육인 마음성장 프로젝트 같은 교육이 보수교육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보육교사자문단 김빛나



보수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실태 (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가장 최근에 전문대학에서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9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하루에 약 8시간~10시간씩 교육을 받았고,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원장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승급교육이나 일반직무교육에서 받았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집중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강사들은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교육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몇몇 강사들은 강의 준비도 미흡하고, 교육 시간 내에 여담을 늘어놓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교육의 상당 부분은 보육교사교육원이나 대학 등에 위탁 운영되다 보니 몇몇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보수교육 이수 관련

첫째, 교사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대부분인 보육현실 속에서 저녁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에게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내에 보수교육 받기를 희망하나 어린이집 운영상 담당 교직원의 부재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기관에서 꺼리는 실정이며, 차선택으로 대체교직원을 지원받으려고 해도 기관에서 원할 때마다 대체교직원을 지원받을 수 없는 현실이 보수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교직원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긴 시간동안 집합 교육에 참여해야하는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동시간을 줄여주십시오. 보수교육은 대부분 보육교사교육원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관이 적어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에는 수강인원이 빨리 모집 완료되어 부득이 하게 먼 곳에 위치한 기관에 가서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 교육이 개설될 때까지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기관의 수를 늘리거나 접근이 쉬운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비슷한 교과목을 줄여주십시오. 현재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승급교육이나 일반직무교육에서 비슷한 명칭의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목의 명칭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도 비슷하고 내용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승급교육 이수 후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되고, 이는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시간 때우기 식의 교육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이 아니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여러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예방교육, 영유아의 급식과 위생 관련 교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등은 보육교직원이 매년 받고 있는 교육인데 이는 보수교육 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해당 교육은 제외하고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보수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의 교과목을 줄이고, 유사 교과목을 인정하여 보육교직원에게 더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교육 신청 및 수료처리 관련 시스템(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장·단점 및 개선방안

첫째, 보육교직원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이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본인이 보수교육 대상자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 교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 개발을 제안합니다.

둘째, 보수교육의 상당 부분은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보수교육 진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웹 사이트에서 보수교육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보육과 관련한 사이트와 연동시켜 웹상에서 누구나 쉽게 보수교육 이력이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보수교육 기관 평가 시 반영되기를 원하는 내용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첫째, 보수교육의 상당 부분을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는데 위탁 기관에서 기관 평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위탁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기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오랜 시간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수교육은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수하는 교육이지만 상당부분 이론에 기초한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강사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은 상호작용,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수방법(동화구연, 손유희, 종이접기 등)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보수교육을 받다보면 강사의 자질과 기관의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받는 교사들도 자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만 계속 만지는 사람, 교육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 옆 사람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잠만 자는 사람 등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는 교육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시간만 채웠을 뿐 제대로 된 교육을 이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에게도 패널티를 주거나 평가 시험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간 때우기 식의 보수교육이 아닌 진정으로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보수교육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보수교육 내실화에 대한 의견



보육교사자문단 김태경



보수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2010년 이전의 보수교육을 가까운 보육교사 교육원 등에서 받았을 때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 때문에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구분을 두지 않고 오히려 비전공자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의 방식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보수교육이 실시되어 질 높은 강의를 편안하게 컴퓨터로 들 수 있게 되어 편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처음 들었던 장애아 보육과정은 그 해 장애아를 맡게 된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기관에서 거리가 멀거나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교사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관련

보수교육 시 대체로 보수 교육 기관마다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다양한 보수교육 기관과 온·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보수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거리의 제한이 없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좋아진 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의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재교육받는 것은 다시 한 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의 기초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교육인 경우 직접 가서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강의자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질이 차이가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승급 교육 시에는 기존에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승급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교사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체교사가 아직 필요 수에 맞게 지원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퇴근 시간 이후의 교육 시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강도가 센 보육교사들이 퇴근 후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및 수료처리 관련 시스템(교육통합관리시스템)사용 장·단점 및 개선방안

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수교육의 신청과 수료의 처리는 가능하나 보육 교사의 보수교육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되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승급 교육이나 보수교육의 시기가 언제인지 시스템에서도 알려주고 각자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승급, 보수교육의 시기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려주면 보수교육을 적당한 때 신청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 기관 선택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교육 기관 평가 시 반영되기를 원하는 내용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보수교육기관평가 시 보수교육을 맡은 강역자의 공인된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 교육 시 중간관리자 교육이 추가 되어 어린이집 내에서 신입교사와 원장 사이의 역할을 맡은 중간관리자가 되었을 때 바람직한 태도 및 역량에 대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계 및 통합시스템, 맞춤형 종일반에 대한 운영, 시간 연장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면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보육교사자문단 심수아



보수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저는 보수교육으로 직무연수, 1급 승급 교육,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마음성장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의 형태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본 교사 근무하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시청각실을 대관하여 토요일 종일교육으로 한 달간 교육받기도 하였고,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주중에 오후부터 야간까지 교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두 보수교육 모두 집단교육으로 장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보수교육은 주중에 근무에 이어 주말 종일 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주말을 이용한 개인 시간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교육원을 이용한 교육은 2주간의 교육 기간 동안 오후 근무 후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교육 모두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보람차다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많은 교사들을 집단으로 교육하였기 때문에 쌍방향의 교육보다는 일방적인 강의 전달 방법으로 수동적 교육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교사가 들었던 교육들 중 무엇보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 한 마음성장 프로젝트 교육은 기억이 남고 의미 있었던 교육으로 생각됩니다.

토요일을 이용하여 소그룹으로 진행 된 교육은 보육교사로서 다시 되돌아보고 ‘나’를 되돌아보는 힐링의 시간을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의 형식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현장 중심의 응용성 교육을 원하며, 보육교사들에게 다양화 및 현실적인 교수법을 배울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관련

대부분 보수교육들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주중과 주말을 이용하여 보수교육을 받기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보수교육은 본인의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발적 교육 신청이 이루어지지만 보수교육을 받기 전에 원과의 일정 조율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보육교사가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하도록 도와주는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제도는 현재 전국으로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을 할애해야하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보수교육 같은 경우 원활한 대체교사 지원이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 또한 대안 중 하나이지만 온라인으로 강의 받는 특성상 궁금한 점 등이 피드백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보육교사들의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이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장거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권역 안에 교육 기관이 생기를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에게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적절하게 활용한 현장에 맞는 보육교사 중심의 능동적·다양화된 보수교육으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관심 및 변화 움직임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및 수료처리 관련 시스템(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장·단점 및 개선방안

현재 보수교육 신청은 보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인근 지역 교육기관에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되면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고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이라는 부담감과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 수요조사를 통해 시간대를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수교육 기관 평가 시 반영되기를 원하는 내용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현재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교육은 특히 보수교육 과정 중 이론 교육 포함하여 실습 교육을 의무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부모님들과 매일 같이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존중하며 대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교사자문단 양소연



보수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보수교육의 목적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능력 강화’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았던 보수교육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의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효과적 측면에서는 고개를 가우뚱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은 ‘성장의 기회’라기보다는 ‘통과 의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육교사는 3년에 1번씩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들으면 3과목 정도를 학습하는 꼴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에 참가하고 싶지만 보육활동으로 인해 교육 참가가 쉽지 않아 평가인증과 관련된 교육이나 의무교육인 안전교육 정도에 참여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의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급 교육을 제외하고는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교육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보수교육에서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 영역별로 정해져 있다보니 같은 시설로 보수교육을 가는 경우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3년에 한 번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보니 200명 가까이 대단위의 인원이 교육에 참가하여 교육 공간이 협소하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관련

원장의 보수교육은 주중 평일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교사들의 교육시간은 평일 밤 혹은 토요일 종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육을 끝내고 교육에 참가하고 나면 한 달이 넘는 기간을 꼬박 10시가 넘는 시간에 교육을 마치고 다음날의 보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천시의 경우 보수교육 기관이 3~4개소 밖에 되지 않고 시기가 정해져 있어 마음에 드는 기관을 선택하기 보다는 교사의 사정에 맞춰 시기가 맞는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갑자기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보다 해마다 꾸준히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보수교육의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기관이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합니다. 요즘은 보육에도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기관이 적고 다룬다고 하더라도 강의식으로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합니다. 무엇보다 보수교육의 커리큘럼에는 교사가 연차를 거둬 나가면서 더욱 필요해지는 욕구에 대한 고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은 10년전도 지금도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1~3년차 교사들은 아이들의 발달이나 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 학부모와의 신뢰 형성 등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4~7년차 교사들은 아동의 연령별 발달에 대해 심도 있게 알고 싶어 하고 3년차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 안에서 적용하고 싶어 하며 전문적인 상담가로서의 교사로 거듭나고 싶어합니다.

7년차 이상이 되면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주임업무를 담당하며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10년이 넘는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회계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물론 이러한 욕구를 위해 특별직무과정이나 신입 원장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과 중 당직 업무까지 마친 교사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체교사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의 안전, 보육교사의 인성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의 경우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소규모로 교사를 초빙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보수교육에서 다루기 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소그룹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뒤 실적입력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보수교육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어린이집에서도 교사 교육을 더욱 규모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영역에서는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 보다 이론을 배운 뒤 각자 실습한 과제를 제출하여 토론하거나 평가의 방법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보수교육을 무의미하게 지나치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교사를 위해 온라인 교육이 예전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이용률이 높는데,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하다보면 교육 내용을 충실히 보고 듣기 보다는 내용을 흘려서 듣는 경우가 많아 효과성이 떨어지고(들어놓은 채로 일을 봄) 평가나 시험도 일반적인 내용이 많아 변별력이 부족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및 수료처리 관련 시스템(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장·단점 및 개선방안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수료여부를 관리한다면 보수교육기관이 없어서 정보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해야 하는 보육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접근 권한이 원장에게만 있는 경우가 많아 원장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교사는 교육실시 및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의 경우 보육통합시스템 이용과 더불어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보수교육 기관에서 교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시기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 기관 평가 시 반영되기를 원하는 내용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대부분의 보수교육 기관이 대학부설의 보육교사양성원인 경우가 많은데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관의 교수진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수진 중 일부는 해마다 같은 내용의 보수교육 자료를 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보수교육 기관을 선정할 때는 교과과목의 내용 및 강의에 필요한 내용을 자료집으로 묶어 전년도 자료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거나 실습이나 토론식 수업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을 마치며 전체 보수교육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지 말고 해당 과목이 끝나면 그 강사와 강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나뉘었던 강사는 다음에는 강의에서 배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고 기관은 적어 기관에서는 보수교육에 대해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다양화 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부천시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 업무를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 오히려 보수교육 실시기관보다 수준이 높고 믿을만 합니다)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생태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어린이집 회계교육, 노무 교육(교직원의 입장에서)에 관한 내용도 교육내용에 포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내실화



보육교사자문단 연은모



보수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국공립 어린이집이라서 그런지 대체교사의 파견으로 평일날 쉽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평일 이용을 못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그런것에 비하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략 100명 정도의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고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인성,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가족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어서 승급자격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과목을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내에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이 많았으며 그것을 자세히 듣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라는 기간은 적합하였습니다. 원에서 2주를 나와서 교육을 들어야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2주 이상이 걸린다면 모든 교사들이 주말 과정으로 교육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과목을 짧은 시간 내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특히 1급 승급에 꼭 필요한 실습생 지도 과정이 있어서 1급 자격증을 받고 날 때의 뿌듯함과 지도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관련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포털에서 하는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결혼, 아동학대 등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한 교사들은 주말에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을 들으면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혼자서 집중하여 듣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중간 엔터 버튼을 누르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도움이 되지만 교육 특성상 대충 흘려서 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 신청 및 수료처리 관련 시스템(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장·단점 및 개선방안

보수교육을 신청하려면 1월에 진행하는 사전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12시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빠르게 클릭하고 겨우겨우 확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고 다음날인 월요일날 힘들게 출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에 사전 신청을 받을 때 어느 기관에서 몇 월 정도에 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받는다면 12시에 클릭하고 다음날 힘들어 하는 교사들의 모습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집에 경기도인데 근무지는 서울이라 교육신청을 서울 안에 있는 곳으로 신청하여야 되서 교육장소 오기까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하면 관리 시스템상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집 근처에 있는 교육 장소에서 듣게 되면 교사들의 피곤함이나 힘든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료처리 관련시스템은 제 경험으로 말하지만 1급 승급교육 때는 마지막날 수료증을 현장에서 바로 주셨고 원장사전직무 교육 때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셨습니다. 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은 신청하는데 복잡하지 않고 시군구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되어있으며 확정이라고 뜨면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교사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달 전 확정으로 바뀌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빠르거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달 전 정도 되면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대체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 기관 평가 시 반영되기를 원하는 내용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근처에 연계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는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시설과 어떤 교육방식으로 교육과 보육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익히는 수업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 내실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보육교사자문단 이영선



보수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저는 지난해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작은 강의실 안에 80명의 수강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배정 받고 좁은 자리에서 하루에 8시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수교육기관의 말에 의하면 예산의 경감으로 건물을 옮겨 다니며 수업의 횟수가 줄어 많은 참가자들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교수진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모두 집중하여 듣고 즐겁게 참여했지만 환경의 열악함으로 좁은 교실과 많은 인원, 낡은 장비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환경의 열악함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부분은 면대면 교육의 효과로 더 집중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후 시험을 통하여 자격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요한 부분에서의 강조와 함께 시험을 상기시키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었지만 수업참여에 저조하고 자격만을 따기 위한 몇몇 다른 교사들에게는 통과하기 위한 시험만을 강조하며 들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강의로도 보였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관련

보수교육을 위한 대체교사의 지원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에 한번 받는 보수교육의 경우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영아들의 낮잠시간 틈틈이 아니면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들었습니다.

보수교육기관이 시에 단 한곳에 불과하여 우리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도 이곳의 보수교육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교사들의 쏠림이 있어서 기관에서의 집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간편하고 편리한 장점을 띄지만 관리감독이 없는 혼자만의 수업이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수교육에서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시간 때우기, 오래된 경력교사에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순한 내용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교사의 개인적인 힐링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도 높은 다양한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및 수료처리 관련 시스템(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장·단점 및 개선방안

필요한 보수교육 신청과 수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선착순 마감을 통한 시스템은 보수교육기관들에게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은 보육교사들의 시스템 사용은 불편함이 다소 보였지만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신속한 신청처리, 수료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신청 시 다수의 접속자가 몰리는 프로그램의 경우 서버가 끊기고 순식간에 마감이 되는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보였습니다. 다양한 보육교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도 필요해보입니다.



보수교육 기관 평가 시 반영되기를 원하는 내용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

보수교육 기관 평가에 빠지면 안되는 부분은 교수진들입니다. 몇몇 자질이 부족한 교수의 지속적인 강의와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은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평가 또한 기관평가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질과 능력은 갖춘 교수의 심도 있는 수업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수의 수업은 즐겁고 재미있게 마음으로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다함께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교육의 가장 큰 필요성은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현장에서 교사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인의 필요에 선택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더욱 견고하고 알찬 시간으로 전문성 향상에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하여 교사의 자비가 아닌 지원되는 경비로 개인적인 취미나 교사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수교육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보육교사자문단

김상희	18
김진희	20
김호연	23
남봉림	25
박주현	27
박현지	30
이은경	32



휴게시간이라 쓰고 근로시간이라 읽는다.



보육교사자문단 김상희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보장 받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휴게시간 12시~13시는 하루 일과 중 보육교사가 식습관 지도를 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도 휴게시간을 보장 받고 싶으나 식습관 지도의 중요성과 원의 사정으로 인해 타의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에 보조교사가 있을 경우 점심시간이 아닌 낮잠시간 또는 통합보육시간에 가끔 휴게시간을 받기도 하나 1시간이 아닌 30분 정도이고 보조교사 없이 교사들끼리 돌아가며 휴게시간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 교사가 두 반을 맡게 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일을 2배로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 받는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보조교사가 반을 맡게 된다고 한다면, 그 반의 책임은 보육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업무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 다른 사람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서 휴게시간을 진정한 휴게시간이라기 보다는 대기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 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 정하고 있고 대기시간을 ‘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도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간과 일치하는데 보육교사의 업무는 보육 외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경우도 드물고, 준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며 그 시간에 보육 외 업무를 하는 교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지원 정책 관련 의견

보조교사의 지원은 목적대로 사용이 된다면 긍정적이지만 기존의 누리보조교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원장님이나 영아반, 행사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터라 보조교사의 지원 확대를 낡힌다고 하더라도 주 목적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또한 보조교사가 주 목적대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위해 보육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교사가 반을 맡는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와 기타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보육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휴게시간에 보육 외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휴게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정착을 위한 기타 지원 방안

하루 일과 중 점심시간은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생 전반에 걸친 식습관이 영유아 시기에 정착되며 영양과 건강, 안전,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점심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주 교육계획안에 점심시간에 교육 목표를 계획·실행합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은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간이며 보육교사는 보육 전문가로서 점심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의, 타의에 의해 휴게 시간에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이 오히려 근로시간이 되어 근로 9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원에 따라 4시간 근로 보조교사를 30분 휴게시간이라고 칭해 4시간 30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휴게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회사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보육교사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교사 지원이 있으나 ‘보조교사’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조교사를 채용한 상태이나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 발생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여 보육교직원, 특히 반을 담임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 하원 이후를 휴게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특별활동시간의 경우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교사와 함께 보육교사가 교실에 있어야 하며 낮잠시간에도 교실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수침이나 관찰일지 등 보육 외 업무를 함) 휴게 1시간을 따로 주지 않고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휴게시간 없이 9시간을 근무하는 현 보육교직원에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점은 보육교사의 퇴근시간 자체가 빨라짐으로써 보육교사의 부재에 대한 영유아의 안전과 학부모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의 법정 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이미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당직제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육교사들이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만 있는 휴게시간’ ‘쓰는 건 휴게시간이라 쓰고 읽는 건 근로시간이라 읽는다’ ‘내 휴게시간 보장은 어디에’ ‘근로자를 위한 보육교사, 그럼 보육교사의 누가 보장하나’ 등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합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육교사자문단 김진희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은 직업 특성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낮잠 시간에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사가 교실에 있어야 하며 그마저도 쉬는 것이 아닌 알림장을 작성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낮잠 시간이 길지 않기에 일지 작성, 수업준비, 행사준비 등은 오후 휴게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습니다. (만1세 아동 7명/정교사 2명, 만2세반 아동 7명/정교사 2명, 만3, 4세반 아동 15명/ 정교사 2명, 부교사 1명)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다 보니 오후 시간에 교사들이 돌아가며 휴게시간을 1시간씩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하원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 오후 시간에 교사가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부교사가 오후 시간에 지원이 필요한 반을 지원해주어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부교사가 휴가 간 교사의 반을 지원하고 있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낮잠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 업무를 보거나 수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사의 1시간 휴게시간에는 주로 수업준비, 일지 작성, 행사 준비 등을 하게 됩니다. 휴게 시간에 개인업무(은행, 병원 등)를 보게 되면 오후 시간에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므로 업무가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야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게시간이 주어져도 개인업무를 보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지원 정책 관련 의견

1. 보조교사 6,000명 추가 배치에 관한 의견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보조교사가 전체 반 운영을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우며 1시간 정도(짧은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있다는 하여도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영아들은 애착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담임교사가 아닌 새로운 보조교사를 한 번 보고 애착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에는 담임교사가 필요합니다. 보조교사가 한 시간만 있다가 가는 형식이라면 영아들에게는 혼란스러움으로 어린이집 적응이 더뎠고, 학부모들의 불만도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조교사는 주로 오후 시간에 배치되어 질텐데 그 시간은 영유아들의 하원이 많은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 전달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때 담임교사가 아닌 보조교사가 하게 된다면 전달 사항을 전달할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교사가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그 반에 보조교사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중점적으로 교사의 휴게시간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의견

직장어린이집이 제외 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하원 시간이 직장어린이집 보다 이른편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특성상 아이들의 하원 시간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 이후이므로 18시 이후에 하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집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떤 이유에서 해당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보육교직원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는 없으나 보조교사의 특성상 책임감이 덜하며 영유아들과 애착을 형성하는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영유아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조교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정착을 위한 기다 지원 방안

1. 9시~5시까지 근무 한다.

교사의 휴게시간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여도 영유아들의 특성상 지원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뿐인 휴게시간 보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1시간을 교사가 쉬거나 눈치 보지 않고 개인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 되어지기 힘들기에 1시간 일찍 퇴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2. 휴게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며 그 이후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야근 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육 교사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다른 직장인들보다 1시간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쉰 것이 아닌 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이므로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교사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휴게시간 보장이 문제가 아닌 9시간을 근무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감당해야하는 것이 체력적, 정신적으로 강한 인내를 요합니다. 이러한 일상이 매일 반복된다보면 아이들에게 습관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면밀하게 영유아를 관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췄으면 합니다. 만1세 1:3/ 만2세 1:5/ 만3세 1:8/ 만4,5세 1:12가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근무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휴게시간 보장에 대하여



보육교사자문단 김호연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현재 담당하고 있는 만 0세반은 담임 2명 및 부담임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휴게시간의 경우 영아들의 낮잠일과가 진행되는 12시부터 3시까지로 3명의 교사가 1시간씩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담임 배치로 인해 담임 및 부담임이 모두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으나 본인이 휴게시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보육업무 상의 책임감이 가중되는 점에는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지원 정책 관련 의견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가 보육교사 근무여건의 질적 개선에 관심을 보인 것은 현장의 많은 교사들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정책이 선 실시된 까닭에 보육교사가 적절히 쉴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휴게시간 내 보조교사 배치라는 지원 정책은 영아반에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휴게시간으로 활용되는 낮잠시간에는 영아의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또는 낮잠 후 영아가 담임교사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담임교사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정부의 지침 보다 현실적 여건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 완화는 결국 한 명의 교사가 책임지는 아동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기타 지원이 시급합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정착을 위한 기타 지원 방안

어린이집은 성인의 보호와 감독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곳으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업무 중 휴식시간을 편히 갖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1시간 휴식’이라는 시간 준수를 강조하기 보다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 퇴근제도가 더 적절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또는 낮잠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사실 담당 영유아의 알림장 작성, 컨디션 파악, 일지 작성, 상담 진행 등으로 사용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육 중 휴게시간 사용은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보육교사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정부 모두가 고민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지금 이대로 가능할까?



보육교사자문단 남봉림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보육교사의 일과는 표준보육과정의 일과와 함께 돌아갑니다. 아침 일과 7:30분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까지 아이들과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떨어질 수 없는 직접대면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일과를 관찰하고 같이 놀거나 활동을 하고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과가 짜여져 있고,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특별 활동시간도 없이 아이들의 자유놀이로 일과가 짜여져 있는 곳입니다. 낮잠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자자” 하면 자고, “일어나자” 하면 일어나는 존재들이 아니다 보니 많은 경우의 수의 아이들이 있고 또 행사가 있어서 아이들이 잔다고 해도 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지를 써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도 잠시 쓰지 않으면 퇴근 이후의 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일지를 쓰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의 시간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일지는 밀리고 집에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휴게시간을 쓰라는 것은 일을 미루고 집에가서 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모의 시행을 해봤으나 아이들과 공간이 떨어지지 않고는 휴식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거나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운영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보육환경을 이해해 주지 않는 정부의 지침이 교사들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시설이다 보니 운영의 주체인 부모님들도 알면서도 법을 어길수 없는 방법을 고심하지만 어느 방법도 서로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지원 정책 관련 의견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휴게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6,000명의 보조교사 그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의 일정시간대의 조정가능성, 보조교사의 책임을 넓혀놓은 정책은 화를 돋우는 꼴이 됩니다. 보육교사들이 가장 힘든 것도 1대 다수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교사가 많고 어느 어린이집은 교사가 적는데 일괄 1명만 지원을 한다던가 그 조건도 정원의 80%를 충족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하는 조건을 달성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이집의 구조와 인적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 지원책은 정부의 시늉으로만 보여집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정착을 위한 기다 지원 방안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교사의 노동의 질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루 9시간을 아이들과 밀착되어 있다가 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만 봐도 1명의 교사로 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교사들의 휴식과 노동조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아이들의 보육환경도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있고 교사들의 노동조건도 개선 할 수 있는 복수교사제를 채택하여 안전하고 여유로운 보육환경을 만들어서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수교사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8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거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보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근무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선제도 후조치’에 대한 어려움



보육교사자문단 박주현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제도가 시작 되면서 우리 어린이집에도 교사 휴게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영아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만0세과 1세반은 두 반씩 짝 반을 있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인력이 충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회의에서는 휴게시간을 13시~15시로 해서 짝을 이루고 있는 반에 교사들이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쉬고 만2세반의 교사는 보조교사의 지원을 받아서 휴게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시해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각반 영아가 두 명의 교사 중 특별하게 애착이 형성된 교사가 있어 잠이 드는 민감한 시간에 교사가 교실을 떠났을 때 불안한 행동을 많이 보여 혼자 남아 있는 교사가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보조교사는 4시간 근무로 9시~13시까지 근무하고 있어 한참 활동하는 시간에 교사가 휴게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셋째, 우리 어린이집은 공간이 협소하여 교사 휴게공간을 베란다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막상 교사들이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영유아들의 소리가 들리고 영아의 시선이 느껴지는 환경에서 단 10분의 휴게시간을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 밖에서 쉬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낮잠 시간인 13시~15시에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공간에서 함께 쉬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사들과 나눈 이야기에서 전과 같이 낮잠 시간에 쉬는 것이지만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휴게시간임으로 영아와 같이 누워있어도 괜찮고 커피한잔을 마셔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또 잠시 병원이나 은행을 다녀올 때도 당당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래도 긍정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지원 정책 관련 의견

1. 보조교사 6000명 추가배치 및 지원 대상 확대

사실상 지금 보조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4시간 근무하는 형태로는 휴게시간을 지원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조교사가 돌아가면서 각 반을 지원한다고 해도 4명의 교사를 지원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보조교사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는데 이를 보장 받기도 어렵습니다. 보조교사의 지원 확대와 함께 보조교사 근무시간을 늘려 휴게시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보육교직원 복무규정 개정

보조교사에 대한 규정은 학부모들에게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교사가 국가자격 소지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규정은 담임교사가 월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보조교사가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간대 교사1인당 아동 수 완화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하는 방안은 교사에게 더 많은 영아들의 안전과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1명은 서류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나 업무 한 가지를 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활동을 제공하고 함께하는 시간동안의 영유아의 모든 안전과 발달에 책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교사 1인당 아동 수 완화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4.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 연령 개정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개정한 방안은 기존 보육교사 경력이 있는 양질의 보육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 연령대가 보통 20세~40세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많은 보조교사를 사용하는데 있어 기존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정착을 위한 기다 지원 방안

첫째,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지원하기 위해선 원장교육이 가장 먼저 우선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정한 교사의 휴게시간에 대해 원장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이 왜 필요한지, 휴게시간을 일과 중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법적 조치 등의 사항을 아는 것은 각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사들에게도 휴게시간의 목적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이것이 쓸모 없는 권리 혹은 보장받지 못한 권리라고 인식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집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특수한 시설입니다. 교사가 근무하는 8시간 동안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안에 있으며 일과가 진행되는데,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일과 운영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실 안에 유일한 성인으로 영유아들의 안전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보육현장을 떠나서 휴게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관련 의견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고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 개별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지 관찰해야함으로 모든 촉각을 세워 일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8시간 동안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휴게시간은 교사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금과 같은 근무여건 속에선 휴게시간을 보장 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이 받침 되어야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변화 없이 휴게시간 제도가 시작되면서 보육교사에게 주어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반대로 현장에서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면 현장에서 모두에게 불편한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지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빠른 변화와 지원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이란?



보육교사자문단 박현지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실태(자문단 이용 경험 중심)

제가 소속된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시설입니다. 만0세~만2세 4교실이 있고, 한 교실만 원담임이고 나머지는 투담임 쓰리담임입니다. 이렇다보니 다행히 한 명의 교사가 교실을 보며 다른 교사는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원담임인 경우에는 보조교사가 봐주십니다.

이미 7월이전에도 휴게시간이 마련(낮잠시간 13:30~15:30) 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하였습니다. 7월 법개정이 된 이후부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칙대로 하기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실행하기 위해 보육실이 아닌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로 나가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위해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야하는 수고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롯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이동시간 빼면 30분 남짓이고 오히려 그 휴게시간이 선생님들을 더욱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1.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교사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될만한 큰 면적의 어린이집이 몇이나 될까요? 교사실에는 업무 컴퓨터가 모두 있으니 휴게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휴게시간동안 혼자 남아 교실을 보는 선생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완화하였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책임한계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거란 우려가 됩니다.

3. 휴게시간 담임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부모님의 불안감

어린이집에서도 최적의 제도를 마련하여 학부모님들께도 안내드리지만, 아이를 보낸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는 낮가림이 심해서 담임선생님이 아니면 낮잠을 자지 못하는데...'라고 하시며 불안해하시고 그를 위해 다른 노력을 해야합니다.

4. 시간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 능력 저하

선생님들 모두가 휴게시간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어린이집에 남아 얼굴보며 이야기 할 시간도 줄어들었고, 남아 있어도 자신의 문서업무, 활동준비, 부모님상담관리 등 개인업무 하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이집 전체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여유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선생님들을 지치게하고 아이들에게 쏟을 관심과 체력을 빼앗아가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더 심할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휴게시간이라는 빛깔 좋은 말 뒤에 숨은 모두의 불안감이 현장의 실태입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지원 정책 관련 의견

이미 저희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가 있지만 보조교사도 휴가가 있고 그 공백을 메꾸는 것은 담임교사들이기 때문에 혼선만 빚습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이 다 보조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교사 및 조리사님과 같은 보육종사자도 해당되니, 그 분들도 일4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30분 휴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어린이집 업무에 혼선을 빚습니다.

일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 미포함 일7시간 근무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중에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정책을 위한 기타 지원 방안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휴게장소가 필요합니다. 원내에 마련하거나 외부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4명당 보조교사를 1명씩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이 필요한 문서만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문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Time Out"



보육교사자문단 이은경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10일째 "CCTV 없는 데서 쉬어라"

- 베이비뉴스 2018.07.10.

[기자수첩] 보육교사 휴게시간 주라니까, 점심 먹고 오라고?

- 쿠키뉴스 2018.07.05.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염불'

- 울산제일일보 2018.07.05.

쉬면서 일해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앞둔 어린이집의 황당지침

- 중앙일보 2018.06.30.

요즘 보육현장에서는 2018년 7월 1일 시행된 “보육교사 휴게시간”제도의 의무화로 위와 같은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특수성과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기사들과 보육현장에서는 현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고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원의 휴게시간 이야기〉

“김OO 교사의 이야기”

‘선생님 관찰일지 거의 다 썼어요?’ ‘여기 CCTV없는 곳에서 써야지...’ ‘퇴근하고 오늘 병원 가야되는데..’ “땡동” ‘네..어머님.’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이루어지지만 맘 놓고 쉴 수 없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등한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틈틈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연장 근무를 하게되서 그것또한 부담이 됩니다.

“정OO 교사의 이야기”

‘어머님 죄송해요 그 시간에는 휴게시간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알지 못해요. 보조교사 선생님께 여쭙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죄송합니다.’

- 우리 아이들은 담임인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문제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일어난 여러 아이들의 안전사고, 문제상황에 대해 제가 사과를 하고 또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오히려 더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듯 “교사를 위한 시간”이 “교사를 힘들게 하는 시간”으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제도적 환경과 실제 환경에서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교사를 존중하고 직업에 대한 복지의 개선을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실행적 측면을 보고자 한다면 “휴게시간을 지키면서 오는 시행착오들이 오히려 업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 운영의 내실화를 돕고자 보조교사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해당이 없어 원하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갖기 힘든 상황입니다.

휴게시간 운영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현재 담임교사의 휴게시간을 전담하여 들어가는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원이나 보조교사가 있더라도 평소 업무가 많아 항상 보조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외에 보조교사정규직 비담임교사가 어린이집에 전담으로 상시 근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많은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거나 전담 교사, 서무관리교직원이 있으면 좋을 듯하며 교사에게 문서업무만 집중하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세 번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며 내실있는 대체교사들을 현장에 투입시키며 휴가와 수당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1시간 쉬는 것 보다는 정당한 휴가를 통해 교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특례법 적용 유예 시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하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업무 중 제공하기 보다는 휴게시간 제도를 폐지하며 근무 시간을 9시~5시로 현실적 “8시간 근무”를 지키는 방법이 보육교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생기면서 “근무대기시간”이라는 용어로 휴게시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휴게시간이 보육교사들에게 제약없는 자유시간이 아닌 그 시간동안 “Time Out”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Time Out”이란 바라지 않는 행동의 긍정적 강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을 잠시 쫓아내는 행동수정방법을 말하는데, 휴게시간동안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어디서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가’, ‘내가 편하려면 어디서 휴식을 취해야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긍정적 강화속에서 부정적 강화를 스스로 억제 시키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가 보육교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점에서 점점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더 나은 보육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편안한 보육현장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지에 부합하는 긍정적 제도로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서로 소통하다보면 보육교사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긍정적 취지에 부합하는 행복한 현장,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현장으로 더욱 더 발전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방안 모색

보육교사자문단

김빛나	36	박주현	49
김상희	39	심수아	51
김진희	41	양소연	53
김태경	43	연은모	55
김호연	45	이영선	57
남봉림	47	이은경	59



내 몸이 열 개면 참 좋겠습니다.



보육교사자문단 김빛나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영유아는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신체적 운동능력이 미숙하여 언제나 주변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보육활동 중에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높아** 교사 한 명이 여러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라 교사가 영유아를 위하여 안전한 환경과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무상보육의 실시로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만큼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교사들은 **영유아들을 돌봄과 동시에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보육일지와 같은 각종 서류, 일과운영, 영유아의 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 촬영 등)를 **수행**해야 하므로, 순간의 부주의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영유아들을 보육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바로바로 충족시켜주고 상호작용 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큰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 가고, 그것마저도 교사가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교사 개인이 담당한 보육이외의 잡무까지 처리해야 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것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사고나 아동학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1.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교사 대 아동비율	현행		제안	
	0세(1:3)	3세(1:15)	0세(1:2)	3세(1:10~12)
	1세(1:5)	4세이상(1:20)	1세(1:3)	4세이상(1:12~15)
	2세(1:7)		2세(1:5)	
	※ 원장의 담임겸직, 초과보육 가능		※ 원장의 담임겸직, 초과보육 금지	

최근 일부 지역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청 사업과 함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는 반가운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조금씩 보육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사업을 더 많은 지역에서도 실시하게** 되면 보육교사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면서 보육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교사의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 ① **보조교사 의무 배치** : 보육실에 한 명의 교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사가 마음 놓고 화장실에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18년 7월 1일부터 보육교사도 근무시간 중에 필수로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한 명의 보육교사가 다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에는 더 많은 영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보조교사가 각 반별로 의무 배치되면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휴게시간을 통한 재정비가 이루어져 교사의 스트레스가 완화 될 것입니다.
- ② **전담인력 의무 배치** : 보육교사들의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영유아를 돌보는 것이지만 이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과 관련한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문서 작업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의 문서간소화 사업을 통하여 불필요한 문서 작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문서 작업과 다음날 활동 준비를 하거나, 주말에 개인 시간을 쪼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누적된 피로가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소홀이나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일지 등 보육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 이외에 다른 **행정적인 부분이나 안전과 영양, 건강, 시설 설비와 점검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의무 배치**하면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③ **대체교사 지원 사업 확대** :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사들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대체교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원장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원에 머무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갑작스러운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대체교사를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원장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이고,

이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개인적으로 대체교사를 구하거나 따로 일당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교사들이 충분한 휴식과 재교육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1. 행정적 지원

: 보육과 관련한 각종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부처와 실행기관 등에 보육 관련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문서 서식이 달라 같은 내용 이라도 평가기관에 알맞게 수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 정책이나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부처·관련기관과 협업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교사를 위한 지원

: 아직도 많은 교사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사들이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사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전문성을 찾아서..



보육교사자문단 김상희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1. 낮은 사회적 인식

자극적인 뉴스보도를 통해 안그래도 낮은 직업자존감이 더 낮아져 바람직한 교사가 오히려 보육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직업자존감은 전문성이 낮은 사람도 보육현장에 오게하여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불러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2. 보육시간만 근무시간, 준비시간은 개인 업무시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보육시간과 동일합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는 주 업무가 보육업무인 것이지 보육업무를 위한 지원시간(수업준비)이나 기타업무(알림장, 일지, 관찰일지, 여러 서류 작성등)에 대한 시간은 전혀 주어지지 않아 휴게시간을 비롯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 보육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본 근무시간(보육시간)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한 9시간입니다. 계약서상 8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고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9시간동안 영유아와 함께 있다보면 개개인이 모두 존중받고 소중한 영유아이지만 긴 시간의 보육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 안전을 지키는 민감한 시야를 놓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1. 영유아 비율의 재정비

현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1:3, 1:5, 1:7, 1:15, 1:20, 1:20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 한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의 하향이 필요하며 특히 만 3세의 경우 전 연령인 만 2세에 비해 2배가 넘는 수가 갑자기 한 반에 구성되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초래하게 됩니다.

2. 근무시간의 분리의 필요성

몇 해 전 사무직의 컴퓨터를 기업에서 감시한다는 뉴스에 인권침해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잠재적 아동학대자처럼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CCTV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하루 9시간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당하며 화장실 한번, 물 한번 마시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보육교사도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서류 전혀 없이 보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면 타 교사처럼 보육업무/시간과 그 외 업무시간으로 분리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1. 원장에 대한 교육 필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10명 내지 20명 이내로 보육교직원이 구성되어 있다보니 어린이집의 분위기와 직무스트레스는 원장의 성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2. 부모에 대한 교육 필요

부모는 등하원시에만 잠깐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이 전부이고 뉴스보도를 통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는 불안감 또한 당연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린이집에 대한 의심으로 표현되고 어린이집 교사 또한 예민한 부모에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인식 바로잡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3. 한국보육진흥원의 좋은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

현재 보육진흥원을 비롯 각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어린이집은 많은 경험의 기회 가지나 폐쇄적인 마인드의 어린이집은 아예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무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평가인증 요인이 이미 들어가있으나 보다 강제적으로 필수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을 전혀 듣지 않은 어린이집은 찾아가서 교육을 하여, 교사와 원장 등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불씨를 지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안전 보호 대책

 보육교사자문단 김진희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1. 안전사고의 원인 및 문제점

영유아 안전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한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어려워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매일 작성하는 환경안전점검표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실의 환경을 점검하지 않은 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위험요인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자료가 부족합니다.

보육 정책 중 하나로, 보다 나은 보육의 질을 위해 평가인증, 서울형 어린이집,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정책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환경이 매일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2. 아동학대의 원인 및 문제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은 아동학대의 의미, 정의 등과 같은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반에 1명의 교사가 있는 경우, 1명이 아이들을 모두 케어할 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의 교사는 모든 아이들을 챙겨야하기 때문에 예민해져서 이러한 예민함이 아이들에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원장님의 역할로 보육실과 교사의 모니터링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모니터링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교사가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의 특성, 학대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법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보다 적습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1세-3명, 2세-4명, 3세-8명)이 법적 비율보다 적게 유지되다 보니 영유아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영유아를 개별적으로 케어해줌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또한 낮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비율은 현재보다 현저하게 낮추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개별적인 환경 제공이 우선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는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 점검 날을 위해 환경을 정비해 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3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이 아닌 매일 그러한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는 평가인증 기간을 줄이거나 자체점검보고를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안전교육은 대집단 교육이 아닌 어린이집 원내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외부활동을 시행할 때 영유아의 안전사고, 실종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방을 위해 외부활동 지침서를 만들어 어린이집에 배부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외부활동 인원확인서, 실질적인 사례를 다룬 안전사고 지침서를 사례와 함께 작성해주었으면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익명이 보장 되지 않거나 선임, 원장님의 눈치가 보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사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센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사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도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영유아를 위해 생활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학대 적용사례, 안전사고 적용사례를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원내 세미나를 강화해주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의 예방, 원인을 찾으면 답이 보입니다!



보육교사자문단 김태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는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설 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교사가 다수의 영유아를 돌보며 보육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보육환경, 휴게시간은 주어지고 있지만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여건,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주변환경 및 보육교사의 인성, 안전 불감증 등을 문제 삼아 책임을 전가하는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보육교사 자신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보육교사의 질을 낮추며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기초적인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등의 필수교육도 업무시간 이외에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교육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충실하게 받아들여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사가 여유로운 마음을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에만 집중하여 보육 활동 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를 위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안전사고의 일부는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전한 태도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만 집중하지 않고 부모에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에티켓을 배포, 홍보하는 등 어린이집 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전국의 어린이집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만 집중할 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켜야할 에티켓 등의 홍보 자료를 배포해 보육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가인증을 통한 제도 및 교사의 힐링 프로그램, 상담등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아동학대로 애쓰는 부분이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의 예방, 원인을 찾으면 답이 보입니다!



보육교사자문단 김호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자체가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육교사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동학대 - 어린이집 불신 -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위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 유형 특성,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등을 보다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어린이집 안전사고 주요 현황(보건복지부, 2018)에 따르면 부딪힘 및 화상 등이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육실 또는 실외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는 가정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영유아 시기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 사고 유형에 관한 단순한 통계치보다는 부딪힘이나 화상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지를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특성(예: 신체 조절 능력 미숙, 빈번한 이동 운동 시도 등)으로부터 비롯된 안전사고의 유형을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인지도키으로써 단순한 안전사고가 교사,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매뉴얼, 권고안 등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이나 업무 과중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채용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 인성 등을 검증하여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모가 판단하는 아동학대의 기준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하는 전국 공통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행위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단순히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지표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기보다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실제 대처방안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부모가 공동으로 기울인 노력 등 실제 발생 사례들을 다루어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은 자기진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바람직한 응답의 하려는 취약점을 가진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상담 또는 교육을 통해 이를 보완해나가는 과정을 갖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사대 아동비율 낮춰야 합니다.



보육교사자문단 남봉림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1. 안전사고의 원인 및 문제점

발달상 아직 신체적인 움직임이 날렵하지 않고 주변의 사고인식이 낮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는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의 경미한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에 방치한다거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 도로 근접한 어린이집) 사고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숙련도를 보육의 질로 끌어 올리지 못하는 보육교사의 호봉체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의 원인 및 문제점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그리고 한사람의 보육교사가 돌보아야 하는 아이들의 수가 많다 보니 아이들 개개인의 욕구를 받아줄 수가 없고 교사는 반 전체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순간에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연구시간은 하나도 보장되지 않고 운영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해고되는 작금의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불안정한 구조이다. 한 교사로 직무를 이행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현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무엇보다도 정부의 보육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의 정의를 나누고 학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동보호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마련된 기준에 의거하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더욱 촘촘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린시기에는 자유선택놀이를 해야 하고 실외놀이를 해야 한다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한 반의 교사가 많은 아이들의 수준을 관찰하고 그 욕구를 지원해주기 어려운 여건인 것을 인식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교사로 배치되는 시간을 늦추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어린이집에 교사수에 비례한 비담임 지원교사가 상주하여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보육은 불안을 가중시켜서 아이들의 움직임 통제를 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여 안전과 불안에 의한 과잉보호 등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안전과 관련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관악구의 간호사 파견 사업) 발굴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권감수성에 대한 소규모 워크숍을 통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우수한 보육교사의 숙련도가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육교사들의 숙련도가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지급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교사나 비담임교사의 역할이 숙련도가 높은 교사들이 배치 될 수 있어서 장학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보육교사자문단 박주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의 근본적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입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1일 8시간 정도 근무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각종 업무와 행사 준비로 인해 현장에서는 아직도 초과 근무가 당연히 여겨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근무시간 내내 보육의 대상인 영유아와 함께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긴장 속에 있게 됩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며 탐색하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눈과 귀는 물론 모든 오감을 통해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육교사는 다음 교육을 위한 준비와 기타 업무까지 봐야 하는 근무 환경은 보육교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아 대 교사의 비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개별성을 존중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려면 한 교실에 영유아의 수는 안전한 보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다양한 성향의 많은 영유아를 한 명의 보육교사가 통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영유아 발달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규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운영과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는 지금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육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는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1년에 1회씩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시되는 교육은 대규모 형태의 교육과 이론 중심의 교육 내용은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에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서울형 간호사 지원사업을 통해 간호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매월 안전교육 및 교사 건강관리 등을 교육을 소그룹 교육으로 실습과 함께 이루어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전해지는 교육은 현장에서 보육교사에게 기술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간호사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가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 교육이 아니라 공감과 격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지원이 잘못된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교사가 이해하고 활동을 계획할 때 적절한 목표를 세운다면 많은 안전사고는 예방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해 알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교사가 갖추고 있다면 아동학대는 자연스럽게 예방될 것입니다.

셋째, 영유아 발달에 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교육은 어린이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보육교사의 협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바른 식습관, 배변활동, 정리정돈, 신발 신기 등과 같은 기본생활습관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줌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 보육진흥원의 역할은 첫째, 잘못된 정보로 인한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현장의 많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아직도 부담스러워한다. 현장관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합지표로 인해 많은 부분이 현장관찰로 평정되고 서류가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된 정보로 인해 과도한 서류업무에 아직도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지표 교육 및 예비 원장 직무 교육 시 불필요한 업무가 현장에서 계속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사례를 홍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로 인해 매년 언론에 의해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비록 내가 학대교사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분명 주변을 둘러보면 잘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보육교사의 모습은 이슈화되기 어렵습니다. 보육진흥원에서 잘하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 대중들에게 홍보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러한 홍보는 보육교사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방안 모색

 보육교사자문단 심수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아동학대의 원인은 제도적,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합니다. 우선 제도적인 문제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일과 중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많다는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안전사고의 발생 등의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도 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을 보육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제 교사의 투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한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분명 다른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영유아의 안전과 바로 연계되므로 현실 가능성 있는 휴게시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일어난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개인적 자질이나 인성의 문제로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는 데 무엇보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처우개선, 정부 측 지원의 부족, 부모들의 과도한 요구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 주변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어린이집 원장, 교사 모두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원장은 교사에게 획일화된 교육 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교사에게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하게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상담 창구 널리 홍보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하여 영유아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육교직원이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교사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업무 특성상 등원해서부터 하원할 때까지 보육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보육교직원들은 보육 업무 이외의 서류 작성, 연수 참여 등의 일들이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과 근무나 가정으로 일을 가져가 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체교사나 시간제 교사 투입, 서류 감소화 정책과 같은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상황에서는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육교직원들은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기관에 장시간 머물러 있는 영아가 정서적 안정감이 낮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는 바 한국보육진흥원 측에는 표준보육시간을 정해 교사의 보육업무 이외의 교재교구 연구, 행정 업무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균형된 맞춤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아닌 협업을 원해요



보육교사자문단 양소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CCTV를 설치하면 모두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규제에 의한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는 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교실이며 부딪히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의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교사가 교실 안의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 및 매일과 매달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린이집 곳곳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거나 평가인증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상황, 구조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천편일률적인 안전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것도 현장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각 공간별로 평가 인증의 지표에 따라 안전을 점검하고 매뉴얼화 하여 교사가 바뀌어도 교실의 안전과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처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사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처법에 대해 의논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 및 업무 과중 및 제대로 된 교사 교육의 부재로 인해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요원한 것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보조교사가 보육을 도와주는 경우 업무 경감을 통해 잠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며 아이들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심으로 예뻐할 수 있었고 보육이 즐겁다고 느꼈을 때는 제가 아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학기 초 한 반을 맡게 되면 새로 맡는 연령의 아이들의 발달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 일이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방학’이나 ‘휴일’이 없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이 생활할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빠듯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빠듯한 현실을 일과를 진행하면서도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계속됩니다. 보육 현장 전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좋지 않은 현상은 교사로서의 원칙이나 보육철학, 직업 윤리 등을 익힐 사이도 없이 ‘요령’에 익숙해 지도록 만들어 결국 보육현장에는 점수를 잘받기 위한 ‘요령’만 생기도록 만듭니다. 보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도 교사가 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것은 ‘부모들의 인식’도 한 몫을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나이가 어린 아동들이 주로 생활을 하여 교사와 아동의 ‘애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혹 어린이집에 의지가 있어 교사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고 해도 일과 중 불안해 할 우리 아이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교사교육 참여가 저조한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교사가 보육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부모님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인드 역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어린이집에서 거듭되는 다양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로 인해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및 직업에 대한 만족감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이나 국가 기관은 원칙을 바르게 세우거나 어린이집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어린이집이나 보육 개인의 직업 윤리나 도덕적 해이로 원인을 돌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더 나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바쁜 교사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이 많아 보육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적지만 신입 교사나 연차가 낮은 교사의 경우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현재 각 시도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교사 개별 지원을 위한 교육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특성을 고려한 ‘상호작용’의 경우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도 각 연령에 적합하게 적용을 할 때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을 통해 어린이집의 양적, 질적인 발전하는 지원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평가인증을 받고 난 뒤 어린이집에 일정한 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규제’ 혹은 ‘평가’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협업’ 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함께 키워요. 우리 아이들~~



보육교사자문단 연은모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1시간이라는 휴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라는 근무시간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지만 그 안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자고 있는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교대로 휴식을 해도 되며 그 시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비율의 아이들을 보육교사 한명이 봐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휴게시간에 마땅히 쉴 곳 없는 보육교사들은 교실 안에서 일지도 쓰고 알림장을 쓰면서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오후 통합반에 보내고 쉬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 시간에 또 일지와 알림장, 밀린 업무로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절히 보장해 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교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보육교직원의 매년 아동학대 교육을 듣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듣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교육을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목적이면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이 적절할 것이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효과성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어찌면 학대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교육을 우선으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대체교사가 지원되지만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대체교사의 지원으로 교사들이 마음 편히 교육 등을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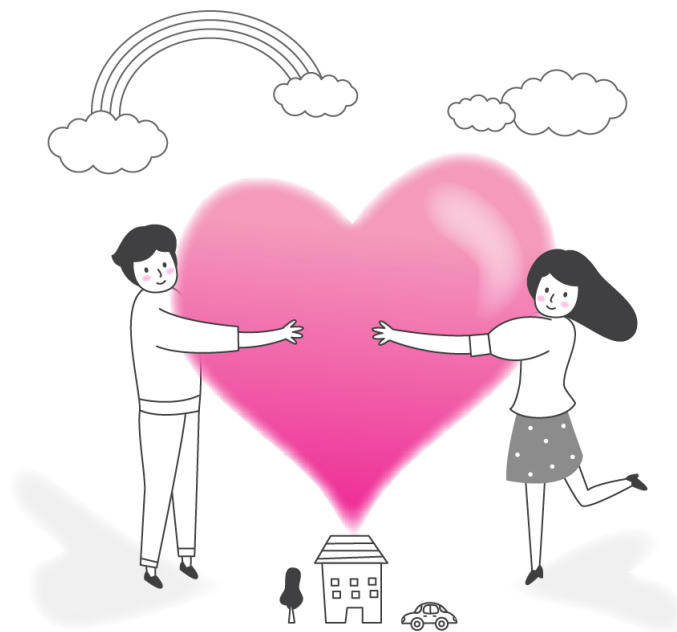
또한, CCTV의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대 예방 시 볼 수 있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CCTV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이유로 CCTV를 보는 것은 함께 있는 다른 아이들의 권리와 보육교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비추어질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내 아이의 궁금증은 담임교사와의 충분한 상담으로 가능하게 하며 안전과 아동학대사가

아닐 때에는 볼 수 없는 진정한 CCTV 설치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평가인증으로 인한 교사 스트레스가 매우 큼니다. 지표의 문서가 간소화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가 체감하는 정도는 낮습니다. 평가인증 서류에 있어서 간소화하라고는 했지만 혹시 모를 대비로 인하여 이중적으로 계속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소화 된 부분을 확실히 또 자세히 알려주시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즐거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인성, 힐링교육을 받으려는 보육교사에 비하여 장소 등의 이유로 조금 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항상 준비해 주시는 진흥원의 감사한 마음 알지만 조금 더 자주 또 많은 교사들이 함께 어울려서 참여하여 마음 힐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은 소통이 첫걸음



보육교사자문단 이영선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안전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현장 중심으로 해보면 아동의 안전사고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 특성상(아동에게 맞지 않는 놀잇감 등), 주변의 환경상(교실의 상황), 교사의 방심(생리적 현상에 의한) 또는 부모의 무지함(아동의 특성이해 없는 무조건적인 원 이용 등), 이외에도 많은 것들에서도 올 수 있는 경우를 현장에서 많이 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첫걸음은 교사와 원장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이 먼저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교사가 이해하고 환경상의 요인을 원장에게 이야기 하여 필요분과 불필요함,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사고의 예방에 가장 중요함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부모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난 부분을 정확하게 말 해 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함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없는 경우 교사의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조건 및 제도적인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아동학대로까지 문제가 심각해짐을 현장에서의 모습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강화는 꾸준한 실행과 이행으로 많은 개선을 보인 것이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딪힘의 예방을 위한 안전바는 어린이집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든 해결책이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언제나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평가인증 지표에 안전하다라는 지표로 이루어진 부분을 현장에서의 최선의 방법으로 모색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도의 강화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을 줄어들었지만 제도적으로 교사의 인권 향상과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모습은 단편적으로 보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휴게시간과 변화되지 않는 교사 대 영아 비율, 예방교육의 획일화등이 현장의 이해 없이 생겨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가중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미흡이 교사의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큰 부분의 아이러니라 생각합니다.

부당함이 없는 현장의 이해가 뒷받침이 된 필요한 제도의 정비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아동중심의 현장이 되기 위한 교사와 원장,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 후 시범적인 사업의 이행 후 보편화 되는 부분도 필요함을 느낀다. 무조건적인 시행의 부작용은 교사의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후 아동의 학대까지 이루어짐이 현장에서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제도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꼭 시행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 벌점제도나 벌금제도 같은 큰 피해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강화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많은 지원사업과 관련예방 안전장치가 한국보육진흥원에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교사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러한 부분을 각 도시자체에 홍보 할 수 있는 연락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좋은 지원사업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소통의 장이 필요한 교사들과 소통이 필요한 부모간에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해의 폭과 이러한 문제들의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현장 중심의 교사로서 확신합니다.

좋은 사업의 시범이행과 책자보급 그리고 교육의 다양화가 앞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의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의 안전상태는? 우리 원 되돌아 보기...



보육교사자문단 이은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원인 및 문제점

최근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크고 작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사고는 민감하지 않거나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고 실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지만 보육 현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보육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교사 한명이 볼 수 없으며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많아 자칫 무신경하게 넘어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 계속해서 사고율이 줄어 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강화 필요사항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며 또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원생활을 위해 보조교사의 인력이 강화된다면 안전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학차량 경우 통학차량 전문 안전선생님이 무조건 배치가 된다면 교사들은 아이들을 맞이 한 후 통학차량을 한번 더 살펴며 현관부터 들어오는 아이들의 인원 체크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학차량 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사업을 시군구에서 지원을 하여 교사들의 업무 보조에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만큼 교사가 아이들에게 충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교사의 편성을 확대 하는 제도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컨설팅을 신청하기 보다 한번씩은 꼭 받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위험 상황도 놓치지 않아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안전교육을 요새는 사이버로 강의를 듣고 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안전교육을 받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안전교육보다 서로 “이러한 안전사고가 있었다.” “우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이런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개설 해 주시거나 홍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재미있게 안전상식, 안전퀴즈를 교사들이 맞추어 보고 수료증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발급 받는 게시판이 있으면 교사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간단하게 안전 점검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